

# “묘지는 인생의 대학습장...마음 다스려주세요”

김홍근 박사(이하 김): '52명 작가의 묘지기행'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순례의 기록입니다. 독자는 이 '죽음의 사레집'을 읽음으로써, 결국 '삶의 사레'라는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죽음'이라는 화두를 탐구하게 되셨는지요?

맹난자 수필가(이하 맹):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동생의 죽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머니, 불의의 사고로 당해 식물인간이 되신 시부모님의 용태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마치 백골관(白骨觀)을 명상하듯 죽음과의 대면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김: 책제목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는 위대한 작가가 잠든 묘지를 찾아가, 현장에서 그 영혼과 대화를 나눈 저자의 체험을 고소란히 드러낸 말로 보입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유독 '죽음의 장소'에서 오히려 편안함과 인생의 의미를 느끼신다는 선생님은 참으로 별난 분 같습니다.

맹: 우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죽음 쪽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의 대학습장이지요. 공원 묘역에 깃들이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하찮아 보이고 하심이 덜 된 마음이 순하게 다스려졌습니다.

김: 앤드 슈사쿠에 대해 쓰신 글 제목이 '오늘까지의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은 무엇 하나 없었다' 인데요, 기독교를 믿는 작가로서 이런 '반노즉보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가톨릭 작가가 불교와 기독교 간의 깊은 소통을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맹: 앤드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소설가로서 이분법적인 기독교 사고 방식에 회의를 품고 있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불이(善惡不二)' 사상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은 둘이 아니듯, 죄와 구원도 둘이 아니라 표리일체라는 것이요, 죄 가운데 그 사람의 재능의 가능성과 희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의 약수를 지켜보았다면, 우리는 이 양심적인 작가의 회심의 미소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 선생님 책에서 "작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영혼을 정화시키는 깃김굿과도 같은 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실제로만 선생님께서는 '문학무당' 같아 보입니까. 대작가들의 사생관을 추적하면서,

과연 본인은 어떤 깃김굿의 업장소멸 체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맹: 묘지 앞에 설 때나 그 작가에 대해 글을 쓸 때는 그의 영혼이 내게 이입되기를 바랐어요. 더 많이 더 아픈게 느끼고 싶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상처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은 모파상이나 보들레르를 찾아갈 때 고등학교 시절 남동생의 무덤에 기대 허탈할 현의 <곡자(哭子)>를 읽어주면서 내 슬픔을 순화시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은 그분에 대한 진혼이자 내 안의 트라우마(상처)를 녹여내는 업장소멸과도 같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김: 죽음과 무상은 불가에서도 발보리심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소동파는 나이 40세 전후하여 정치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투옥 당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동파

김홍근 독자에게는 '삶의 사레집' 묘지기행 '깃김굿'이라면 업장소멸 체험을 하셨나요 죽음 학습하는 소감은?

파가 불인요원(佛印了元) 선사와 상종조각(常總照覺) 선사에게 참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맹: 선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동파에게 "여기에는 앓을 자리가 없으니 거사께서는 편한 대로 하시죠"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파는 "그럼 스님의 좌대를 빌려서 제 앓을 자리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선사는 "저는 출가한 사람으로 지수화공 사대가 모두 비었고 오로지 존재하지 않으니 어디에 앓으시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말문이 막힌 동파는 약속대로 그의 옥대를 풀어 선사에게 드렸습니다. 선사는 그에게 화두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소동파였다면 선사를 깔고 앉아보겠습니까. 김 박사님 같은 어떤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절하고 그 자리에 공손히 앓을 뿐이지요.

맹: 그 뒤 소동파가 상종 선사를 찾아가 법을 청했을 때, "대관은 어찌 무정(無情)설법을 듣지 않고 유정(有情)설법만을 들으려 하십니까?"라는 한 마디에 그는 '무정설법'이란 화두를 안고 달리다가 어느 계곡에 이르러 우렁찬 폭포소리에 막혔던 가

## 대답 : 불교와 죽음과 문학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출간

세계 대문호들의 삶과 죽음을 천착해온 맹난자 수필가가 최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수필과 비평사 刊)를 펴냈다. 몽테뉴, 헤세, 임어당, 소동파 등 52명의 대문호들이 문헌 묘지를 둘러보고 그들의 삶과 문학세계 그리고 죽음관을 작가의 불교적 사유를 담아 풀어냈다. 본지는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출간을 계기로 3월 5일 본사 회의실에서 '불교와 죽음과 문학'을 주제로 저자 맹난자 수필가와 김홍근 문학박사의 대담을 갖고, 불교의 생사관이 동·서양 문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망했다. 정리=이은기 zaoasis1983@hyunbul.com · 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맹난자 수필가(오른쪽)와 김홍근 박사가 대담에 앞서 조계사 경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홍근 박사는... 한국의국어대 스페인어과, 동대학원 졸업,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 문학박사 졸업. 現 한국 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참선일기> <보르헤스 문학전기> <활과 리라 - 옥타비오 파스의 시론>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등이 있다.

숨이 확 뚫리고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때의 계승이 "계곡물 소리는 모두다 장광설이고[溪聲便是長廣舌] 산재는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리오[山色豈非清淨身]"입니다.

김: 소동파는 계곡 물소리를 듣는 순간, 주객달락의 체험을 하고 무정설법을 깨달았군요. 한편 선생님께서는 또한 '주역(周易)'에 대해서도 평생을 바쳐 공부해 오셨는데요, 소동파의 <적벽부>에 보이는 '현상, 본체, 중도묘용'의 대목을 주역의 '변역(變易), 불역(不易), 이간(易簡)'으로 풀어주시겠습니까?

맹: <적벽부>에서 동파는 뱃비를 하는데 어느 객 하나가 슬프게 통소를 부는지라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루살이의 삶을 천지간에 의탁한 거와 같고 아득한 창해의 좁쌀 한 알이라. 우리네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장강의 끝없음을 부러워한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아는가?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지만 그러나 일찍이 가는 것만이 아닌 것을, 가득 참과 비움[盈虛]이 저와 같으나 마침내 소장(消長)할 수 없음이다."

죽 영허소장(盈虛消長)은 현상계의 작용일 뿐, 본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현상계의 본질은 <반야심경>의 부증불감(不增不減)처럼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역의 첫 번째 원칙인 변역(變易)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상계는 영허소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그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역의 두 번째 원칙인 불역(不易)입니다. "이간(易簡)"이란 쉽고 간단하다는 건괘와 곤괘의 공능(功能)을 말한 것입니다. 천지의 도는 쉽고 간단하다는 뜻인데, 선가에서 말하듯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평상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김: 임어당은 세익스피어를 두고,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널리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는 대자연 그 자체와 같았다"고 평했습니다. 이 '자연에

맹난자 수필가는... 이화여대 국문학과, 동국대 불교철학과 수료. 현대수필문학상, 남촌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前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前 에세이문학 발행인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아름다워라> 등이 있다.

순용하는 인생'은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의 소위 모방인데요, 운명에 통달한 노련한 생의 달관자인 세익스피어의 말년과 사생관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맹: 초등학교 학력 밖에 없던 그가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극단의 대표가 되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와 명예를 일구어냅니다. 그러나 한풀이처럼 보이는 성공 뒤에 그는 이 큰 자의 무상함을 절감하며 그 방향에 돌아와 만년을 친구들과 어울려 소탈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로 지내던 그는 마치 선지식 같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수필가로 활동

해 오셨기에, 1580년에 간행된 <에세>로 '에세이' 장르의 비조가 된 몽테뉴와 작가로서의 친밀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을 읽고 그의 낙관적인 수필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 중의 한분으로 손꼽히는데요, 몽테뉴 그리고 임어당과 더불어 선생님의 수필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맹: 몽테뉴는 초기에 금욕주의적인 스토아철학에 경도되어 죽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라고 강조했으나, 나중에는 모두 자연에 맡기고 그저 자연에 따르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인 임어당은 현세의 삶에 모든 가치를 두고 이 지상을 있는 그대로의 천국으로 보았습니다. 문학은 작가 정신의 성장 기록입니다. 문학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른 작가들의 지고한 정신을 만나면, 문학이 곧 구도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맹난자 내면 상처 씻겨 내려갔어요 카잔차키스 자유 붙들었고 공초는 자유를 견어했지요 익은 과일처럼 낙과할 터

수필은 허구가 허용되지 않는, 작가 내면의 탐구로 이어지는 문학이기 때문에, 인생과 우주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인생관을 갖지 않으면 좋은 수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일본의 바쇼나 그리스의 카잔차키스는 여행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글쓰기와 여행 그리고 죽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맹: 여즉인생(旅則人生)이라며 인생 자체를 하나의 시간여행에 비유했던 바쇼. 그는 길을 떠날 때면 비장했습니다. 당시 여행조건이란 생환(生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오로지 시인으로서 하이쿠의 시적 세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문학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작가들에게 여행이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영혼의 창과도 같습니다.

카잔차키스 역시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디세우스처럼 많은 나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랭보, 에드거 앨런 포, 톨스토이, 두보, 바쇼, 김삼각도 여행길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생이며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김: 공초 오상순 선생과 카잔차키스 두 분의 묘비명이 모두 '자유'를 노래한 것이라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동서의 대자유인이었던 두 분의 묘비명을 소개해주시고, 문학과 자유와 죽음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공초 선생의 마지막 말씀, "자유가 나의 일생을 구해줬구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맹: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자유이므로." 이것은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테마도 '자유'였습니다. 한편 공초 선생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무정치, 무소유의 생활로 자유를 추구해 왔음에도, 마지막에는 "자유가 나의 일생을 구해줬구나!"라는 말을 던집니다. 카잔차키스는 끝까지 자유에 불타고 있었는데, 공초는 그 자유를 견어한 것입니다. 즉 무심(無心)을 들어야 할 때 벌써 무심이라는 한 걸 관문을 두르게 되듯, 자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본래 무아(無我)인데 따지고 보면 어느 자리에 속박과 자유가 따라 붙겠습니까? 선생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묘비명의 시구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천 나의 혼(魂)!' 우리의 존재가 가합(假合)인 그 실제 없음을 아셨기에 어디에도 주(住)하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위에 보금자리를 틀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요.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김: 저로서는 요즘 같은 책의 홍수 시대에 이렇게 진지한 저작물이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책이 제17회 신곡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겠지요. 철수를 넘기신 선생님은 책에서 '등쪽에 바짝 붙은 죽음과 등거 중'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몸으로 죽음을 학습'하시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맹: 몸으로 체험하는 것 만큼 정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증세를 겪으며 오온의 해체를 겪어보게 됩니다. 몸이 무거워 날은 그대로 땅 속에 묻히는 심정으로 드러눕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 나는 한줌 흙으로 화(化)하겠지. 한줌 흙으로 세월과 더불어 스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자 상상 속에서 내 몸이 산화되는 게 느껴집니다. 늙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생각된다면, 죽음의 수용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노쇠를 겪는 것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무리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아무 불만 없이 낙과(落果)하려고 합니다.

##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쭉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숨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받음) 따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켜주세요!**

50cm

1m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조원: (주)국민메디칼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판매원: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농협 355-0014-5055-43

###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귀사문석(貴蛇炆石)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면에서 불태 더움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93%이상) 방사 된적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훗날 잘 통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열기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대기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균력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서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린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도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척추간격이 열리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한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척추간의 영감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영계 있던 척추관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균력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